



HOME 사회

## 직지코리아 전시도록 대영도서관 소장 결정

김재욱 기자 승인 2017.03.02 18:52

(동양일보 김재욱 기자)2016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전시도록이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된다.

2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기획전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됐다.

영국국립도서관인 대영도서관은 1억5000만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원전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세계 최고 목판서적 금강경, 구텐베르크 성경 두권 등 중요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대영도서관 측은 직지의 문화사적 의미와 기록유산의 국제적 플랫폼인 직지코리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영도서관의 직지코리아 전시도록 소장은 문화외교적 성과이며 직지 세계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수석큐레이터 김승민씨가 거주하던 영국으로 돌아가 개인적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 활동을 추진, 대영박물관으로부터 공식소장을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직지코리아의 킬러콘텐츠였던 주제전시 '직지, 금빛 씨앗'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패션, 그래픽, VR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융복합적 전시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욱 기자 kjok@dynews.co.kr

&lt;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gt;